

“한반도 탈핵, 종교지도자들이 이끈다”

광주지역 5대 종교지도자, 탈핵 선언과 에너지 절약 나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3주년을 맞아 광주지역 종교지도자들이 탈핵선언과 에너지 절약에 나섰다.

광주지역 5대 종교지도자들은 3월 11일 광주중심지인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탈핵 종교인 선언’을 갖고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에너지 절약 절전소 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이날 모인 종교지도자들은 “2011년에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아직도 높은 방사선량으로 인해 사고수습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일반일 연가 피폭 허용량의 2천배가 되는 초고농도 방사능 오염 수증기가 분출되고, 방사능 오염 폐수가 하루 300만톤 이상 바다로 흘러들어가 이 확인돼 우리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다”며 “핵발전소의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에서만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핵발전소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핵발전소를 없애는 것은 생명과 평화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영광한빛원전에서 지난해에

도 크고 작은 사고 및 고장, 가동중단, 위조 부품 비리, 사고 은폐, 축소 등으로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삶과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위험한 핵발전소를 없애고,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한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3월 11일 핵발전소 폐지 운동 선언 에너지 절약 운동도 함께 전개 결의 “생명 평화 위해선 핵발전 없어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인들은 이어 △핵의 위험성과 실상을 알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나누고, 피폭자의 고통을 위로하고 치유하는데 앞장 설 것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종교·문화·사상을 수렴하고 융합하면서 핵없는 광주·전남을 위해 생명연대를 적극 모색할 것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에너지를 아끼고 절약하는 녹색생활을 실천 할 것 △2014 지방선거에서 ‘탈핵과 에너



성명서를 낭독하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시각 스님과 5대종교 지도자들. 광주지역 종교 지도자들은 이날 에너지절약운동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지 전환’의 흐름을 만들고, ‘방사능 식품 안전 조제’ 확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낭독에 이어 5대 종단 지도자들은 탈핵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에너지 절약 절전소 선언식’을 가졌다.

이 선언식은 각 종교단체와 기관, 회원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얼마나 절약했는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참가자들은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자연의 온도(여름 28도, 겨울 20도)로 생활, 대

기전력 제로 생활화, 친환경 LED전등으로 교체, 대중교통 이용, 아너바다 운동 생활화 등을 실천하기로 서약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시각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총무 효진 스님, 행법 스님을 비롯해 광주전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광주NCC, 광주YMCA, 광주YWCA, 원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지부, 천도교한울연대 등 각 종단 지도자와 환경단체가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 마이산 탐사 20년째 장학금 전달



신비의 돌탑으로 유명한 전북 진안 마이산 탐사 감동장학회(이사장 진성스님)가 20년동안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3월 17일 진안 군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감동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에는 37명의 초·중·고생들에게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 현장에는 감동장학회 명예회장 혜명스님, 진성스님을 비롯한 탐사대중스님들과 김기원 전북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구훈회 진안 자원봉사센터장등 자원봉사단체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학금 전달에 앞서 감동장학회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구훈회)는 업무협약식을 갖고 2016년까지 3년간 2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150년 전 탐사의 돌탑을 축조한 이갑룡 처사의 이름에서 따온 ‘감동장학회’는 1994년 설립 이후 200명이 넘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총 2억여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진성 스님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올해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행해오던 전달식을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수혜학생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장학금은 받은 최지호(진안공고 2)군은 “마이산 탐사에서 장학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문화재 보존, 불교계 입장 적극 대변할 것”

회일 스님, 전북 문화재위원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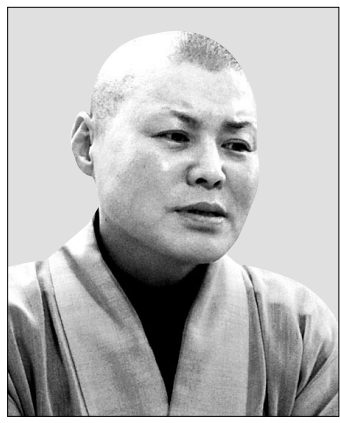
전주 참종은우리절 회일 스님(사진)이 스님으로서 최초로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에 위촉됐다.

전라북도는 지난 2월 21일 전라북도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조물, 사적지, 전통 가옥을 담당하는 1분과 위원에 회일 스님을 위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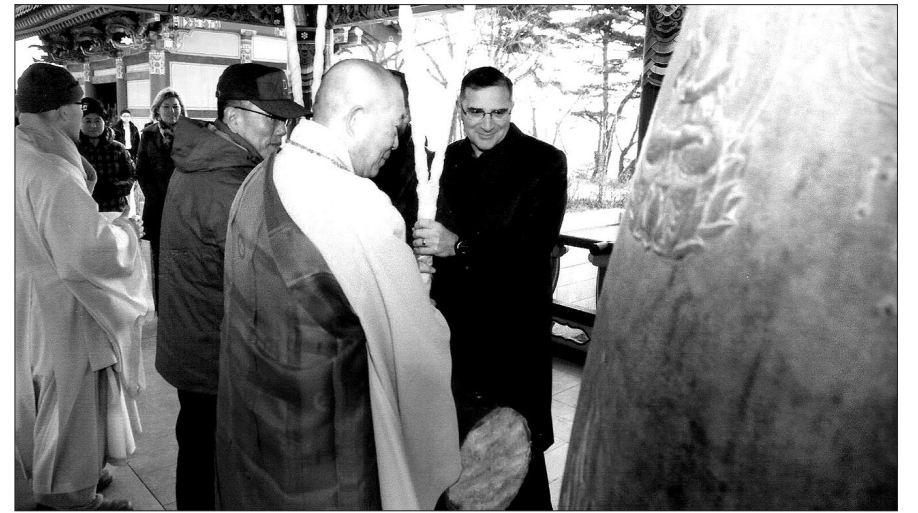
회일 스님은 “전북지역의 전체 문화재 중 60% 이상을 불교문화재가 차지하고 있지만 불교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불교문화재에 대한 권리, 보호 육성방안에 불교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불교문화재는 대부분 우리 민족과 함께 발전해온 역사에 기반을 둔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종교문화재로만 보는 그릇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며 “불교문화재가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라는 인식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문화재에 대해 전통과 문헌에 근거한 복원과 보수, 계승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불교계의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미연합사령관 일행 낙산사 방문

한미연합사령관 일행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낙산사를 방문했다.

한미연합사령관 부부, 박선우 한미연합부사령관 부부, 김유근 육군 제8군단장 부부 등 한미연합사령관 일행은 3월 15일 낙산사 주지 도후 스님을 예방했다. 도후 스님은 낙산사의 창건과 역사에 대해 설명했으며, 일행은 동해 일출과 설악산 설경을 감상하고, 원통보전에서 낙산사 소실과 복원의 역사를 되새긴 후 낙산사 범종루에서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범종 타종을 했다. 낙산사 측은 “이번 한미연합사령관의 방문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한국인과 보다 가까워지려는 한미연합사령관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이나는 기자

前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2주기 다례제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진우)는 3월 15일 백양사 대웅전에서 ‘수산당 지중 대조사 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추모법회는 오전 10시 예불에 이어 인사발(방장 지선스님), 헌다례, 문도대표 인사(수인스님)로 진행됐다.

방장 지선 스님은 “물질문명의 과도한 발전으로 인해 도덕 윤리적으로 위기를 향해 치달고 있는 이때 수산 큰스님의 가르침과 역대 백양사의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 문도가 함께 책임지는 자제와 화합으로 고불총림을 계승하자”고 말했다.

전 고불총림 방장 수산 지중스님은 1922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1938년 백양사에서 법안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일생을 대중교화와 수행, 포교에 전력해



온 스님은 2004년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에 추대되었으며 2012년 3월 7일 입적했다. 세수 91세 법랍 73년.

한편 백양사는 백양사 산중총회와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한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의 방장추대식을 오는 4월 22일 백양사에서 봉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증심사 정우 스님 초청 법회

광주 불교계로부터 큰 호응을 이끈 ‘무등산 증심사 명사초청법회’가 3월 15일 구룡사 회주 정우스님을 첫 법사로 모시고 2014년 강의를 시작했다.

‘무등(無等)에서 길을 묻다-33선지식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진행되는 증심사(주지 연평) 명사초청법회는 광주지역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출·재가를 아우르는 33인의 선지식을 초청하는 대중법회이다.

정우 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열반이란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서 일체의 번뇌가 소멸되는 것”이라며 “불자들의 노력은 결국 많은 대중들을 향해 항상 노력하고 선업을 짓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증심사는 이날 정우 스님에 이어 4월 14일 이종표 교수(전남대학교 철학과),



5월 13일 자연스님(선운사 초기불교불학승가대학원장), 6월 12일 국제불교초청대법회, 7월 11일 수불스님(부산 범어사 주지), 8월 19일 한담스님(문사수 회주), 9월 17일 김재성(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10월 8일 자연스님(동국대 겸임교수)을 매월 보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변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증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번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